

투데이

“우리도 국립공원에 포함시켜 주오” 무등산 5개 마을 이례적 요청 화제

22일 무등산 국립 승격 심의 긍정적 영향 미칠듯

광주시가 민선 5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국립공원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애초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사유지 규제 등을 우려해 강력 반대했던 무등산 인근 마을 주민들도 최근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을 보호하자’며 찬성으로 돌아서 국립공원 지정 심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립공원인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심의를 한다. 이

날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이달 내에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는 지난 2010년 12월 30.23km에 이르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그 면적도 78km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무등산 주변 일부 마을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 등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기도 했지만, 광주시 주도로 열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오허리 무등산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됐던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국립공원 구역 지정을 요청해 오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지정을 희망한 마을은 광주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동구 용연마을, 동구 동적골마을, 화순 도원마을, 화순 수만리 들국화마을 등 5개 마을 444세대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마을 대부분은 국립공원과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제한을 받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탓에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도움을 줬다’는 명분도 얻고, 마을을 위한 행정 지원 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역민의 남다른 ‘무등산 사랑’

도 국립공원 지정에 큰 힘이 있다. 무등산은 수달, 독수리 등 멸종위기 9종을 포함해 눈주목과 모감주나무 등 희귀식물종 등 2282개의 동·식물이 서식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점도 매력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 지정 이후 24년 만이며 21번째가 된다.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심의과정에서 면적 등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대구(도립공원 팔공산) 등 타 지역에서 무등산의 단독 국립공원 지정을 문제삼고 있는 게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



“광주 동구를 의료특구로”

광주 동구 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15일 80여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패널로 나서 동구 의료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전남 공기업 12곳 3년째 적자

지난해 적자만 1000억대...행안부 “일부 민영화·청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여수도시공사 등 광주·전남지역 공기업 12곳이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개 공기업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고, 지난해 적자 규모도 10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적자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공사(2011년 적자 311억원·3년 합계 적자 906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19억원·62억원)

등이 적자를 냈다.

또 전남도는 ▲목포시 상수도(13억원·41억원), 하수도(169억원·472억원), 공영개발(88억원·168억원) ▲여수시도시공사(6억원·27억원) ▲나주시 하수도(26억원·77억원) ▲화순군 상수도(6억원·26억원) 하수도(47억원·145억원) ▲영암군 상수도(31억원·82억원), 하수도(53억원·131억원) 등이 손실을 냈다.

이들 광주·전남 공기업과 지역기업 등의 지난해 적자는 925억이며, 지난

3년 동안의 적자폭은 2628억원에 달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379개 중 36.4%에 달하는 138개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손실 합계는 1조7609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 금액 1조9872억원의 88.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들 중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민영화하거나 청산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단독주택 30%

도시가스 혜택 못받아

광주지역 상당수의 단독주택이 타 연료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금이 2배 가량 비싼 LPG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단독주택 19만 1138가구 중 71.3%인 13만 6312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광주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비율은 61.3%로 올해 말까지는 73%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가구 중 3가구는 난방연료로 도시가스 요금보다 비싼 LPG, 등유 등을 사용하는 셈이다.

해양도시가스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해당 가구와 50대 50로 분담하고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해당 가구에 별도 시설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영세한 단독주택 주민들은 배관 설치 비용과 별도 시설 분담금 부담 때문에 선택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도시가스 측에 관련 예산을 늘려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

U대회 다목적 체육관 입찰 자격완화 3차 공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다목적체육관 공사 입찰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광주시는 15일 시청에서 계약심의 위원회를 열고 광주U대회 다목적체육관 공사(사업비 915억 원) 입찰자격 기준을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

16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찰 제공고를 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9일 현장설명, 내년 2월8일 기본설계도서 접수 등의 절차

를 거쳐 3월20일 시공사를 결정할 뒤 같은 달 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완화된 입찰자격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관리를 통해 오는 2015년 3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콜센터 유치로 광주 신규 일자리 ‘쑥쑥’

2년만에 17개센터 2183명 증가...내년 1만3천명 규모로

광주시가 각 기업들의 고객센터 유치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출범 당시(2010년 7월) 43개 7245석(명)이던 고객센터가 11월 현재 60개 센터 9428석으로 늘어났다. 2년여 만에 17개 센터 2183석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전략과 우수 여성인력 양성 정책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시는 민선 5기 내에 총 5050석을 더 확보해 1만2295석의 고객센터 일자리를 만들

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객센터 유치를 위해 전국 차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10년 12월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고객센터 전용건물인 ‘빛고를 고객센터’를 완공하는 등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했다. 빛고를 고객센터에는 지난 10월 200석 규모의 현대카드 고객센터가 들어오는 등 라이나생명 등을 비롯해 5개 업체 1100석에 이르는 고객센터가 입주·운영중이다.

시는 또 2011년부터 고객센터를 광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보조금 2

억원, 건물 임대료를 3억원까지 지원 하는 등 고객센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전, 대구, 부산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고객센터 입주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매년 지역 내 16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여성인력은 12000여 명에 이르며, 특히 광주여대 콜마케팅학과 등 4개 대학교에서 고객센터 관련 인력이 220명, 송원여상 등 전문계 고교에서 2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올해는 광주여대, 호남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4개 과정 200여명의 신규상담사 양성과정도 운영중이다. /박진표기자lucky@

강운태 시장 ‘대한민국 경제리더’ 글로벌경영 대상

강운태(사진) 광주시장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수여하는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글로벌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의 한국경제를 이끌 리더들의 경영이념과 가치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선정식’에서 글로벌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리더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준희)는 이날 수상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수출주도형 첨단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데는 특시의



사장이,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는 강운태 시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강 시장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경신과 2013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도시환경정화 광주정당회의 성공적 개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 글로벌 경영의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청 옆 특급호텔 건립 민간 참여자 없어 무산 위기

광주시가 시청 옆 부지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옆 부지에 특급호텔을 건립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사업제안 마감일인 이날 현재 응모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1~2명이 제안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응모자가 없었다”며 “재공모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일부 사업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부지 매입 비용이 부담되는데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철·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강사 柳無山居士

운명철학

人間的 기쁨회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절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축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지식 학문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워져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로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한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공명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3기 수강생 모집!!

제3기/나도 명강사가 될 수 있다.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면접능력향상과정

■대상 :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획·설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해 드립니다.